

# 여야 22대 새 원내대표 '친윤·친명' 굳혀지나

### 민주 '친명 핵심' 박찬대 출사표 추대 분위기에 이재명 체제 강화 국힘, 이철규 보폭...친윤 '구심점' "수직적 당정관계 기대 못해" 비판



국힘 이철규 민주당 박찬대

오는 5월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에서 각당의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로 22대 국회 원내사령탑이 물밑 교동정리되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연임설'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에 친명 핵심 인사를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재명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는 모양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의원은 3선 고지에 오른 박찬대 의원이 유일하다.

박 의원은 직전 최고위원으로 '친명 중의 친명'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를 출사표로 내세웠다.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 해오던 다른 의원들은 줄줄이 퇴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전날(23일) 불출마로 선회했고, 이에 앞서 김성환·서영교 의원도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마평에 올랐던 민형배 의원과 진성준 의원은 각각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의장 등 당직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출마를 접었다.

당내에선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박찬대 의원 추대 형식으로 흘러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주민·한병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박찬대 의원이 우세한 판세에서 표심 얻기가 쉽지 않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당 선관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선관위 1차 회의에서 '출마를 선언한 1명의 추대 가능성'에 대해 '추대해

도 큰 문제는 없지만 최근 민주당 국회의장 선거도 그렇고 민주당,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결선투표를 기준으로 찬반투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선거 등록은 25일 오전까지다.

국민의힘 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 인재들과 연이어 회동하고, 중진 의원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등 보폭을 넓히자 몸풀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영입한 인사만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 진영에선 3선에 성공한 '짚윤'(진짜 친윤)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당 일각에선 총선 참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친윤 세력이 다시 당권을 쥐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그동안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가고 역할을 해 왔는데, 원내 사령탑까지 맡게 되면 22대 국회에서도 수직적 당정 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당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에 오른 김도읍·박대출·이중배 의원과 3선의 추경호·김성원·성일종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 윤, 우주항공청 초대청장에 윤영빈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내달 27일 출범 예정인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차관급)에 윤영빈(사진)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24일 임명했다.



수로 재직하며 로켓 추진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 교수는 액체로켓, 가스 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 년간 수행했다.

우주청 연구·개발(R&D) 등을 총괄하는 임무본부장(1급)에는 존 리 전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본부장이 기용됐다.

성태운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인사를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 교수는 서울대 항공공학과에서 학사·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

수로 재직하며 로켓 추진 연구실을 이끌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으로 내정된 존 리 전 나사 본부장은 미국 이민 1.5세대다. 성 실장은 "나사 헬리오피직스 관리자,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위성통합관리본부장, 수석 어드바이저 등으로 근무하는 등 나사에서 29년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尹, 낙선 국힘 의원 격려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불출마·낙선·낙선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격려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박미정 시의원 "사회복지종사자 폭력피해 대책 마련을"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사진) 의원은 24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복지종사자 폭력피해 회복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은강 무등육아원 원장은 '아동양육 시설 종사자 인권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건태 광주사회복지관협회장,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지열 광주복지협치위원회 위원, 정현화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강은숙 광주시 돌봄정책과장이 참여했다.

광주시의회·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광주복지협치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를 입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피해실태와 회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인 양정빈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폭력피해 현황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용자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들은 공포,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조직에 대한 소속감 감소, 이직 등을 증가시

김건태 광주사회복지관협회장,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지열 광주복지협치위원회 위원, 정현화 광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이선미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강은숙 광주시 돌봄정책과장이 참여했다.

박미정 의원은 "현장은 복지서비스 이용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에 욕설이나 가벼운 폭력 정도는 참고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우리 삶에 필수인력이 된 종사자들의 피해를 인식하고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 박현숙 도의원 "정부·국회,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전남도의회 박현숙(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우 은둔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많다"며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 4명 중 1명은 10대 때부터 고립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대부분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정책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학령기 은둔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기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은둔형 외톨이는 청년 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명으로 추정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시된 바가 없어 사회적 고립 청소년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하면 14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은 "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경

## 핵심 의제 설정 시각차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의제 설정부터 난관에 부딪히면서 다음 주로 순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첫 실무 회담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의제를 놓고 이견이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3+1' 의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사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거부권 자체 등 3개에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관련 합의가 이뤄진다면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의제로 꼽히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양측 모두 조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무분별한 현금 지원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진통을 예고했

다. 대통령실은 소통의 물꼬를 댄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의제 측면에서도 '민생'을 놓고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차 실무 회동이 25일이나 26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차 회동은 이번주 내로 조만간 할 것 같다"며 "주말을 빼면 내일이나 모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대통령실과 여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두 명 중 한명은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국민 두 명 중 한 명은 많지 않다. 반드시 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해병대장병 사망 사건에 따른 특검법, 피해자 중 70%에 달하는 2030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사회에서 큰 사회적 슬픔으로 기억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반드시 21대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

정청래 최고위원도 "고 채상병 사망 사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연루된 의혹까지 있는 중대한 수사 외압,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수사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연루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 말고 무슨 수가 있다. 이제는 윤 대통령이 좀 정당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